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시아 로잔대회 -오는 8월말 ALCOE V 열린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아시아 교회 지도자 제5차 로잔대회가 오는 8월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3박4일 예정으로, 아시아 22개국에서 120명이 참가하는 ALCOE V (The 5th Asia church Leaders Conference On Evangelism)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종윤 목사)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김치신학세미나(KIMCHI)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을 민박 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제11차 김치신학세미나는 ALCOE V 관계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서울 강남노회 연합수련회 -내일 아침 9시30분 개회-

서울 강남노회 연합수련회가 노회 교육부(부장 이수종 목사)주관으로 14일(월) 오전 9시30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개회예배시 이종윤 목사가 설교하며 민경배 목사(연세대)와 박종순 목사(총신교회)가 특강을 맡는다. 서울 강남노회 산하 교회가 연합

하여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온 힘 받는 기회가 되기를 준비위원 층은 바라고 있다.

연초 노인 및 환자심방 시작된다

우리교회는 연초를 맞이하여 70세 이상 된 노인 심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구담당 목사들이 심방에 나섰다. 또한 병으로 교회 출입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계신 환자들을 이종윤 목사가 심방한다.

각 부서별로 연초 출발 신호탄 올려

예배위원회를 필두로 각 위원회 부별 지회별 연초 단합을 위한 출발이 부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 초부터 회원 단합대회 겸 출발 신호탄을 높이 올리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게 보인다.

우리의 작은 헌신의 불꽃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받으시며 이 한해동안 각 부서가 세운 목표달성을 통해 교회는 부흥성장을 하나님께 큰 열매를 바치도록 하자.

비전2020 운동 회원모집

군 복음화를 통해 민족의 75%의 복음화를 2020년까지 이루려는 비전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할 회원을 모집중이다. 비전 2020운동본부(위원장 이번생 장로)는 기드온 300명용사를 목표로 회원을 확대 모집기로 했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 참여 -올해 112교회 지원키로 확정된다-

에국운동이요 전도운동인 비전2020에 참여할 분은 705호실 또는 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본부는 올해 112 교회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원서와 노회 추천서를 함께 제출한 160개 교회 중 선발된 교회로 후원자와의 결연을 맺게 된다. 운동본부는 1월말까지 후원자가 더 있을 경우 밀기로 했다.

확정된 지원교회 및 후원자 명단은 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신혼가정부를 시작으로-

402호 가이오실로 명명된다

세 예배당에 입당한지 1년만에 당회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각 부서들이 자리를 잡은 후 유아부실로 사용되던 402호실을 ‘가이오실’로 이름짓고 당회원들이 사용기로 한 것이다. 당회원들은 지금까지 802호(비전홀)를 사용해왔고 매주 일 아침 경진회는 503호실(여수문홀)을 이용해왔다. 따라서 802호(비전홀)는 앞으로 부서 회의실로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각 부서별로 경해김으로 들뜬 마음으로 부서별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월4일(금)-5일(토) 1박2일로 경해전 신혼가정부 수련회를 필두로 앞으로 있을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부서	일정	장소	강사	주제
유아부	2월25일	702호	이종윤목사·조대현지도사	성령안에서 우리는 하나
유치부	2월25일	706호	이종윤목사·이홍자지도사	
유년부	2월25일	102호	이종윤목사·이영희지도사	
초등부	2월25일	701호	이종윤목사·신미숙지도사	
중등부	2월25일~27일	501호	이종윤목사·윤정국목사	
고등부	2월18일~20일	교회	이종윤목사·이대훈지도사	
대학부	2월18일~20일	가평승동기도원	이종윤목사·김용호목사	성령이여 보게 하소서
청년부	2월28일~3월1일	양평미리내 캠프	이종윤목사·정용돈목사	성령과 동행하는 기정
신혼가정부	1월4일~5일	양평미리내 캠프	이규경목사	
사랑부	미정	교회		
영어성경부	미정	미정		
에바다부	2월28일~3월1일	교회		
장년부	2월22일~23일	교회	이종윤목사·고경재목사	성령이여 부흥케 하소서

토요·수요전도대 출항

전도위원회 신하 70인 전도대는 지금까지 토요일에만 해오던 전도대를 수요1부에 배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토요일은 오후3시 남선교회별 주력부대, 수요일은 오후2시 각 교구별로 주력부대를 정하여 헌터공원과 대치역 그리고 주변 상가에서 노방전도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에 기도와 훈련 그리고 전도실천을 하고 있는 70인 전도대(대장 왕경래 장로)에서는 대원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신자를 위한 기도대원, 사랑의 편지 발송대원, 대신자 분류대원 그리고 토요 전도대원(토 오후 3시) 수요 전도대원(수 오후 2시)을 각각 모집한다. 전도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소명감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전도원사가 있어야 하며 세째 책임감과 열심이 있으면 누구나 희망한다. 사무국이나 소속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 바란다. 전교우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02년도 순례자 기자 임명

순례자는 올해 수고할 기자를 다음과 같이 임명 발령한다.

노송성 경동호 신동호 이운진 허숙 김시환 유태서 유은경 김민철 나소경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비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이사야 강해

하나님의 긍휼

(이사야 55장 1 – 5절)

하나님은 영원 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위 언약, 곧 아담을 대표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시키기로 인류에게 언약하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종윤 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거니와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인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재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1. 하나님의 초청

미래를 맛을 준비는 현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회개와 영적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수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무거운 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초청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에 참여하라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1)초청의 대상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은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 조국의 행복과 세상적 만족만을 목마르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마 5:6)이 그들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은사는 값없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은사의 본질은 진주보다 귀한 것이고 그 가치는 인간적 상환 방법을 능가합니다. 그 은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은사는 부자나 배부른 자에게가 아니라 기갈에 허덕이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窟에 들어가는 일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가지고 못 할 일이 없지만 구원받는 일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이 가난해야 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늘 나라의 아름다운 집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2)초청 장소

하나님은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물은 구원을 비유한 것입니다.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 4:10).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3)축복을 획득하는 방법

하나님은 물로 나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물질적 생필품은 값없이 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필수품을 값없이 주십니다. 영적 은혜는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2절의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육체의 쾌락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2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이 만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시 63:5, 36:8, 사 25:6).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영의 양식이요 진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서 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단 마음으로 순종하면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2.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남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3절).

영원한 언약은 새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새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은혜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모두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새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언약의 내용이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위 언약, 곧 아담을 대표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시키기로 인류에게 언약하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1:31-33).

모세와 맺은 언약은 돌판에 씌어졌지만 새언약은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새언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은혜계약을 보여주며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행동을 취급합니다. 구약은 이 계약의 약속방면을 말하며 신약은 성취방면을 말합니다. 신약에도 약속방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종괄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히브리어로 '베디스'라고 읽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취하신 계약관계이며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바빙크(Bavinck)는 '진정한 종교는 계약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자연신론 또는 범신론에 근거하므로 인격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계약을 주십니다.

3.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남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4-5절).

하나님의 긍휼은 마침내 메시아가 오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사는 오시어 하나님의 진실성을 증거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곧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고 메시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국가의 홍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그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년 남선교회·여전도회 회장단

이렇게 알아겠습니까



이규희 권사(한나여전도회)

우리 한나 여전도회는 세움 받은 서울 교회의 耳順 세대의 여전도회로 귀가 밟아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는 한나 를 많아 본 받으라고 이름 한 것이에요. 저 같은 작은 그릇을 이 일에 쓰시려고 사명을 주심에 두려움부터 앞서 갑습니다. 새벽제단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을 주시려거든 저희와 명월함도 함께 주세요"라고 간구한 결과 주님의 말씀을 계단에 되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막고 내게 베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제 주님 말씀의지하고 충직스런 충복의 사명을 다하면 주님께서 작은 그릇을 채워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002년 우리 한나여전도회는 먼저 주님께서 일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돌보듯 흘어진 자 하나님도 찾아 제자리에 오도록 함께 주안에서 겸손하고 소박하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교통하고 기도하며 봉사 협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은혜 받고 감사하며 보답함으로서 계속 축복 받는 한나를 더욱 많아 가는 한나 여전도회가 되도록 회원들의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김숙자 권사(에스더 여전도회)

2002년도 새해에 부족한 져를 에스터 여전도회 회장으로 세우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에스터 여전도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으면 죽으리라 순종으로 민족을 구했던 에스터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에스터 여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서울교회와 인근 지역사회와 농어촌 전도에 앞장서며 소외된 형체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며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전도회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유경(루디아여전도회)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부족한 져에게 큰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매우 멀리고 두려웠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 두려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지식만으로 하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아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 하신 설교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껏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빛진 심경으로 루디아 회원 한사람 한사람과 함께 주안에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처럼 순종하여 변화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성춘모(빌립 선교회)

빌립선교회 회원은 '63~'72년생 남자 성도입니다.

2002년도 입원으로 삼기실 분들은 회장인 저와 박형수집사(부회장), 김병호집사(총무), 유태서집사(서기), 한선규집사(회계)입니다. 지난 1월 3일은 1월 월례회로 모였습니다.

금년에는 빌립선교회의 월례회 모임일자를 고정하였습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601호 예정)

에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1월(3일), 2월(7일), 3월(7일), 4월(4일), 5월(2일), 6월(13일), 7월(4일), 8월(1일), 9월(5일), 10월(10일), 11월(7일), 12월(5일) 첫번째 목요일이 휴일인 6월과 10월은 두번째주 목요일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첫째 모임 활성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임 일자도 고정하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주안에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농어촌 100교회 지원입니다. 어느 선교/전도회든지 모두 동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선교회와 결연이 되는 교회에 1번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 선교회원임에도 동참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선교회에 해당되시는 여러분!

개인적인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빌립남선교회가 힘을 합하여 교회의 중심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빌립선교회원 여러분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민숙(도르기여전도회)

너무나 부족한 제가 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싶고 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신 것은 우리 어머니의 한결같으신 사랑, 철

없고 아이 같은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하시기 보다는 늘 칭찬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기다림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미성숙한 제가 도르기 여전도회 회장이라는 직분을 맡아 두렵기도 하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믿으며 맡기신 사역을 통해 귀한 신앙적 체험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 마음은 원하나 자녀 양육 등으로 여전히 허락되지 않는 우리 도르가 회원들이 서로 편안하며 회원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도르기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실질적인 봉사로 참여하는 것도 좋고 전도회가 양적, 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마음으로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2002년 한해에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도르가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원회에 듣는다.

왕경래 장로(전도위원장)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해를 거울삼아 전도위원회 각 조직을 겸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교인이 온전하게 다니며 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사업에 전념

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전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습니다.

1. 70년 전도 대 조직 강화— 토요 전도대는 기준률을 유지하면서 남선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세로 수요 전도대를 조직하여 교구별 주력부대 선정, 한타공원에서 노방전도 및 인근 아파트 단지 축호전도를 하겠습니다.

2. 전도학교 운영 강화— 전반기는 각 전도회 전도부장 중심으로 교육하고 후반기에는 디락방장 중심으로 교육하여 전도대원을 질적, 양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3. 대신자 운동을 통한 전도의 생활화— 전교인이 대신자를 연초에 작성, 충보기료와 전도편지 보내기를 연중 계속하여 사평자 대회기간 중에 초청주일 경해 결식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송구영신예배 3일 / 강남노회 신년 하례식 6일 /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순결서약식 7일~12일 / 청자기수련회 14일 / 강남노회 신앙수련회 비전2020운동(매월)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일 12일 / 성경통독사경회 27일 / 육사58기 졸업파송예배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일 /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성찬식, 감사찬양예배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사세례식 8일~6월 10일 / 2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8일~6월 10일 / 제11학기 서울성경대학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일 /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17일 / 가족친양대회 26일 / 공동의회(권사·안수집사 선거)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 강남노회 체육대회 7일 / 전양대원 세미나 6일~25일 / 2002총해작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 백추감사절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5일 / 단기선교팀파송 6일~9일 / 농어촌전도단 파송 27일~30일 / 아시아로간대회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일~11월 4일 /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2일~11월 4일 / 12학기 서울성경대학 11일~13일 / 2002마자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11월 24일 / 2002사평자대회 18일 /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27일 /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 예선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성경암송대회 본선 10일 / 중·고·대·청년부 연합찬양예배 17일 /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11주년감사찬양예배 24일 /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11주년 감사예배 성찬식·임직식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 8일 / 친양대원 임명 11일 / 친양대원 임명 15일 / 교사 임명 24일 / 성탄축하 찬양예배 및 축하의 밤 25일 / 성탄절 새벽예배, 성탄절 축하예배 29일 / 교회학교 졸업 감사예배 장로 안식년·권사 은퇴식 전도시상·주간성경공부 시상

4.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 3배 배가 운동 - 새기족 등록시 전도회 회원으로 유도 및 월례회 불참자 각 전도회에 참여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5. 봉사를 통한 전도 - 여름 농어촌 전도대 파송 및 농어촌 100교회 지원교회를 수직으로 증가하고 교회주변의 복지시설 방문 등 지역사회에 전도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땅 끝까지 이로ւ 내 중인이 되라는 명령에 따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무지런한 빌이 되어 모이면 기도하고 흘어지면 전도하여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교회 후원자 결연현황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구분	교회명	후원자 명단	구분	교회명	후원자 명단
1	계곡제일교회	홍순복	57	신진교회	금성섭 · 남경희
2	고향교회	하인선 · 남태순	58	신촌교회B	도르가이어전도회
3	곤천리교회	권장칠	59	신촌교회A	김정애
4	광곡교회	임상현 · 서희숙	60	압곡교회	비비여전도회
5	글암교회	청년부	61	양평교회	비비여전도회
6	금선교회	정남부 교사	62	언양영신교회	비비여전도회
7	금성교회A	빌립남선교회	63	여천동교회	루디아이어전도회
8	금성교회B	이강인 · 혀숙	64	연보리교회	루디아이어전도회
9	금평교회	김종자	65	영광교회	마리아이어전도회
10	낙원교회	이동만 · 이은자	66	예덕교회	마리아이어전도회
11	성동교회	전기섭 · 원영애	67	오마교회	박철훈 · 이경희
12	동광교회	박정수 · 김경옥	68	오진교회	신용식 · 김신영
13	대한성결교회	김복녀	69	운암제일교회	마리아이어전도회
14	동교교회	홍성모	70	울곡교회	마리아이어전도회
15	동화교회	김석환	71	월승교회	마리아이어전도회
16	둔병교회	세기족부	72	월령성광교회	에스더여전도회
17	마장교회A	임영미	73	은성교회	에스더여전도회
18	마장교회B	이관규 · 이순영	74	주왕산교회	에스더여전도회
19	만년교회	정무균 · 이영희	75	죽림교회	김명심 외 20명
20	명계교회	나미용	76	진도주안교회	에스더여전도회
21	모약제일교회	장영택	77	참빛교회	노영숙
22	목석교회	이성우	78	천복교회	한나여전도회
23	목포열린교회	박태선 · 김초일	79	청수교회	최종시 · 4-10.11다락방
24	제주동신교회	조원장 · 오성애	80	칭풍은성교회	사라여전도회
25	방축교회	권사회	81	조전교회	임광식
26	백도교회	이임희 · 백영희	82	춘양농아교회	사라여전도회
27	백마교회	모세남선교회	83	충도교회	왕경래 · 김정희 · 와원희
28	봉기교회	이성근 · 김영림	84	테백서부교회	사라여전도회
29	봉정교회	이경선	85	필암교회	박두호 · 한성우
30	부남명성교회	앨리야남선교회	86	행정교회	송인권 · 윤숙지
31	북면중앙교회	이남상 · 최영란	87	화순칭풍교회	김재술 · 조춘택
32	사모벨엘교회	백우기 · 허현숙	88	화평장애교회	사라여전도회
33	사봉로교회	전기섭 · 원영애	89	횡항교회	안인호 · 이명신
34	사정리교회	권사회	90	흑석교회	김세재 · 이운진
35	산야교회	박준우	91	산달교회	김시온
36	산전교회	이영기 · 이영숙	92	일산교회	오유식 · 이봉규
37	삼진교회	샬롬권사회	93	동부교회	교역자회
38	상리교회	오정수 · 이영희	94	금호교회	홍승전 · 황정임
39	새뜸교회	배현주	95	반승교회	안드레남선교회
40	새화순교회	베드로남선교회	96	신월교회	서춘식 · 김진숙 · 서현진 · 서현아
41	서광교회	엘리야남선교회	97	덕계교회	김사무엘 · 경경월
42	서하고교회	베드로남선교회	98	마동교회	스데반회
43	성광교회	임홍수	99	신안교회	엘리야남선교회
44	성루교회	모세남선교회	100	아산교회	김시온
45	늘봄교회	스데반회	101	시산교회	1-1다락방
46	박산교회	아브라함남선교회	102	선교교회	이번생 · 박경희
47	송래교회	바울남선교회	103	용신교회	인대진 · 김경희
48	송천교회B	조칠기 · 김영란	104	덕호교회	김병호 · 무지개회
49	송천교회A	이양철 · 김미향 · 이성화	105	명학반석교회	김유경
50	수락교회	바울남선교회	106	금릉교회	김권집 · 와경애
51	수북교회	사랑의 회	107	대평교회	김석환
52	승원교회	바울남선교회	108	작실교회	노송성 · 이영옥
53	시온교회	노병호 · 홍지나	109	신촌교회	노문화 · 장정화
54	신덕교회	스데반회	110	백양교회	박용봉 · 김정운 · 박윤경 · 박경원
55	신성교회	가브리엘	111	분천중앙교회	엘리야남선교회
56	신암교회	김재길 · 강명순	112	내도중앙교회	황선희

서울 주간지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 새로 임명된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예 배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I 부 오전 11시
예 배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최형얼 집사(4교구)

새해가 되면 항상 청지기 수련회가 정례적으로 있다. 그저 3,40분 조용히 듣는 것으로 마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개최로 국운상승의 기회가 왔다며 다소 들뜬 분위기이지만, 우리는 교회 부흥의 기회가 온 것으로 여기고, 진정 청지기로써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새벽마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기인 듯하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며 또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친밀한 교제 · 상호협력 · 영적성장 · 복음전파"의 실질적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청지기인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며, 가정생활 · 사회생활 · 교회생활에 본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불평과 비난보다는 격려와 위로로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겸손히 봉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보상을 삼으며, 나의 일보다는 주의 일을 먼저 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선한 청지기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살아보자.

이 일을 위해 각 전도회가 3배로 증가될 수 있도록 태신자를 꼭 가지고 늘 기도 하며,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70인 전도대에도 적극 참여하여 복음 전파에 주력하자. 물론 각 직능별 선교회인 실업인 · 학원 · 의료 선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자. 농어촌 100교회 지원에도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며, 올 한해도 서울교회가 눈부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청지기 · 행동의 청지기로 살아가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눅17:10)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윤숙희 집사(6교구)

마태복음 20장 8절과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청지기(steward, foreman)는 헬라어 'օ이코스(집)'와 '네모(관리하다)'의 합성어로 주인집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대체로 종들 가운데 오래되고 근면, 정직하며 가장 신뢰받으려는 만한 자가 청지기로 발탁되었다.

아브라함 집의 엘리에셀(창15:2)과 보디발 집의 요셉(창39:4-6)이 대표적인 예로 이런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게 대한 지혜와 충성이었다. 부족한 종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못 성도를 대할 때마다 서울교회를 비추는 거울의 모습으로 보여지며, 교통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도록 금번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특강을 한다. 15일(화) 한국 군선교연합회 월례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이종복사장 (대동인테리어): 가이오실 카페 시공현남

■ 강선옥집사((주)대성OA퍼니처): 가이오실 카구현남

■ 문동진 · 김은정 성도(3교구) 12월 27일 득남

■ 안병준 · 한강미 성도 (7교구) 1월 1일 득남

■ 김원중 · 이갑연 집사 (1교구) 1월 5일 득남

■ 개업 / 나원규 · 김경희성도 (12교구)
(주) 하나 씨앤텍 개업 전화 2226-9990

■ 금주의 식사제공: 천정화집사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멸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교회약도 :

